



## 오 록 도 행 복 칼 럼

박 영 군

유엔PEC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교육학박사

10여 년 전 연수차 일본의 ‘마쓰시다 정경숙(政經塾)’을 방문했다. 초등학교 4학년 밖에 다니지 않은 ‘경영의 산’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일본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여 미래의 일본을 바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만든 미래지도자양성기관이다. 그가 70여년의 사재를 내놓았고, 마쓰시다 그룹 관련 회사들이 50여엔을 투사하여 1979년에 설립했다. 이곳에서는 일본의 리더로서 기본적인 품격을 갖추기 위해 서예, 검도, 다도, 좌선 등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나, 상근하는 교수가 없으며

그 외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학습 프로그램은 스스로 짜야한다. 22세부터 35세까지만 입학할 수 있으며, 그 밖에는 성별, 국적, 학력 등 제한이 없다. 올해로 40기를 맞이한 마쓰시다 정경숙에서는 일본 수상을 비롯한 수많은 리더를 배출했다.

부산교육청 교육위원 시절, 영재교육을 위해 이스라엘을 찾았다.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예술과학영재학교가 있다. 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 나라는 경상북도 면적만한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를 놀라게 하는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다. 그래서, 이웃 아랍국가들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 예술과학

영재학교도 많은 영재들을 배출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은 이런 영재학교를 운영하려면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예산이 이스라엘 국가 예산이 아닌 미국의 유대인 재벌가 16인의 후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자국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나라마다 민간 재벌들이 교육에 투자하고 있었다.

남구의 유엔평화기념관은 22개 참전국 용사들의 6.25 당시의 유품과 전투 상황들을 잘 전시해둔 곳이다. 이곳은 전시실, 세미나실, 컨벤션홀 등 비교적 유엔과 관련된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고, 이런 평생교육을 운영할만한 인

적 자원들이 많다. 이런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국제평화기념사업회 부이사장으로 있을 때 ‘UN 글로벌 영어 인재교육원’을 개설했다.

초중학생 중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영어 실력이 우수한 인재를 팔기, 면접을 통해 각각 20명씩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에게 세계 각국의 문화 이해 능력을 기르고, 발표력을 함양시켜 장차 UN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유능한 꿈나무 인재를 양성했다. 이 프로그램은 부산 지역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유엔관련 인사 등이 문답 및 토론, 체험학습 등을 통한 발표력과 의사소통 중심의 고급 영어활용

능력을 길러주었다. 우리가 발행하는 유엔평화신문에 학생들의 꿈을 영어로 게재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나 강경화 장관처럼 유엔에서 외교관으로 일하고 싶다는 포부를 품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한 유엔글로벌영어인재교육원은 3년 동안 6기까지 240여명을 수료시켰다. 하지만 운영상의 착오와 일부 미숙함으로 이 프로그램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 점은 내내 아쉽다.

국제사회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싸여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무한 경쟁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인재 양성의 필요성은 절박하다. 유엔평화기념관은 국제적인 인재 양성에 가장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우리 남구에서도 일본의 마쓰시다정경숙이나 이스라엘의 예술과학영재학교처럼 부산의 꿈나무인 꼬마 외교관 양성기관이 생겨나길 바래본다.

### 객태육의 바람고개 이야기II

## 우암동 표민수수소를 아십니까

(漂民授受所)

초량왜관은 조선 숙종 4년(1678년)에 설치되었다. 1876년 부산항 개항 때까지 약 200년 동안 일본과 교역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던 곳이 초량왜관이다. 하지만 그 실체는 문헌상으로만 전해질 뿐 유구는 일체 발견된 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다만 개항 이후에는 일본인 전관 거류지가 되었던 곳이다.

이와 같은 초량왜관이 용두산 부근으로 옮겨 설치됐던 그 무렵부터 우리 남구 우암동에는 바다에서 표류하던 외국 사람들을 수용하던 표민수수소가 운영되고 있었다. 바다에 표류하던 외국인 중 일본인은 일본 본토 또는 대마도 인근 해역에서 항해하거나 고기잡이를 하다 풍랑을 만나거나 좌초해 표류한 경우로, 조선 근해에 표착하였거나 조선인 선박에 의해 구조되었다. 이들을 ‘표왜(標倭)’라고 불렀다. 일본인 표왜는 조선 관리의 검문을 받고 초량왜관에 인계되었고, 우암포의 표민수수소로 수용된 뒤 본국으로 송환되기까지 먹고 입는 식량과 의복은 동래부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다.

표왜들이 경상우도에 표착되었거나 구조되었을 때는 거제에 있는 옥포만호 소속의 역관(통역관)이 현지에 나가서 검문한 뒤 다대포 첨사령까지 데리고 오면 초량왜관에 거류하는 일본인 역관이 다대포로 나와 만나본 뒤 우암포의 표민수수소에 인도 수용하였다. 그리고 전라도와 강원도 지방의 표왜는 중앙에서 이양선의 출몰이나 표류민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시관직을 가진 문정관을 보내어 검문하는 경우도 있었고, 해당 도의 역관이 검문한 뒤 동래부 우암포까지 압송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표민수수소에 수용하였다.

반면, 조선 사람이 일본 근해나 대마도에 표도 또는 구조된 경우에는 대마도를 거쳐 초량왜관으로 오고, 초량왜관에서 우암포의 표민수수소에 인계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남구의 민속과 문화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남구 우암동 지역에 표민수수소가 있었다면 어디쯤이었는지, 시설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어떤 벼슬의 관리가 상근하였는지, 경비병들은 수영성에서 파견된 수군들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도 없고 전해진 바도 없다. 그래서 우암동 원로 토박이들에게 표민수수소가 있던 위치부터 수소문한 결과, 어떤 분은 옛대 어른들에게서 들었던 기억은 있지만 그 위치는 모른다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분은 동향 성당 언저리쯤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우암2동에 사는 안성자 씨는 현재 동천 끝단에 건설된 동천교를 지나 약간 커브 길의 우암로 초입에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광명목재 합판 공장을 거론했다. 표민수수소는 그 광명목재 공장 앞 아스팔트 도로 건너편 마주 보이는 곳에 있던 기숙사 자리가 유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부연하자면, 그곳은 장고개 스테인리스 양식장이 밀집해 있던 최정상 고깃마루에서 우암로를 수직으로 내려다보는 곳이다. 위치상으로 보면 표민수수소의 후면은 깎아지른 벼랑이다. 숲이 무성했던 그 옛날을 떠올려보면 표민수수소는 표류민들의 수용소이자 보호소다운 안전성을 우선하여 설치한 곳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표민수수소의 위치조차 전혀 몰랐던 사실에 비추보면 이렇게 구전으로나마 어렵듯이 알았다는 것만 해도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소설가·향토사연구가

## 남구 명소 26곳 돌며 얻은 힐링과 활력

### ■ 남구 모바일 스탬프투어 도전기

‘부산엔 남구 스탬프 투어’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다. 또한 숫자로 도전하는 것도 좋아한다. 코로나로 참 많이 답답한 차에, 마음을 뽕 뚫어보고 싶어 남구로 떠나는 힐링여행을 시작했다. 12월 12일까지 남구 내 관광지를 찾아 모바일 스탬프 5개 이상을 획득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기프트콘 등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이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스탬프투어 앱을 설치한 뒤 남구 26곳 명소를 방문하면 자동으로 스탬프를 얻을 수 있다.

스탬프투어를 시작한 첫날이 불씨를 당겼다. ‘함 해볼까’하고 슬며시 시작한 것이 점점 스탬프 숫자가 늘자, ‘끝까지 가보자’라는 욕심이 생겼다. 집에서부터 걷기 시작했다. 행운의 여신은 날씨가 좋았다. 바람은 살랑살랑, 모든 게 평화롭다. 첫 도착지 평화공원에 들어서니, 평화공원 스탬프가 뜬다. 손으로 터치하니 찍혔다. ‘아싸, 이 재미구나!’

대연수목원, UN기념공원에서 힘을 내 오르막을 올라 국립일제동원역사관과 유엔평화기념관에서 광광 터지는 스탬프의 기쁨을 맞이했다. 유엔평화기념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인증샷을 찍었다. 부산 박물관으로 내려갔다. 그 도시를 알려면 그 도시의 박물관을 가봐야 한다고 여겼던가. 박물관은 아와 갤러리 조각공원으로 연결되어 좋았다.

부산예술회관을 지나 모교인 부경대로 갔다. 캠퍼스가 아기자기하게 잘 가꾸어져 걷기에 쾌적했다. 학교 다닐 때, 동아리방이었다가, 돌집하우스로 국수를 사 먹던 곳이,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위계하우스라니 참 만감이 교차한다.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다. 그리고 향파문학거리 문화골목으로 가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슬로리트를 하고 쉬어가며, 다음 귀착지를 향해 동선을 정리해 본다.

일단 다음 코스는 걸어서 한 시간 정도를 가야 하는 우암동 소막마을이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봐야겠다 싶어 ‘분연하’

일어섰다. 우암동 도시숲 야경을 끌로 13번째 스탬프투어로 뱅뱅하게 하루를 채웠다. 다음날 투어 2일차는 토요일이라, 친구랑 온천장역에서 오륙도스

### ■ 남구 스탬프투어 26곳 명소

- 청년평화의길(10개소) : 부산박물관, UN기념공원, 평화공원, 대연수목원, UN조각공원, 국립일제동원역사관, 유엔평화기념관, 부산예술회관, 부경대위계하우스, 향파문학거리문화골목
- 이기대해안산책로(7개소) : 오륙도스카이워크, 오륙도해맞이소공원(자연마당), 이기대어울마당, 동생말전망대, 백련사, 신선대, 무제등소공원
- 우암동 마실길(3개소) : 우암동소막마을(공동체센터), 동항성당포토존, 우암동도시숲
- 기타 명소(6개소) : 황령산전망점, 감만부두시민공원, 남구실내방사장, 문현혁신지구부산금융박물관로, 증권박물관터미어터, 황령산유원지생태소

카이워크까지 22km를 걸었다. 덕분에 오륙도스카이워크와 오륙도해맞이소공원(자연마당)까지 섭렵했다. 투어 3일차는 평일이라 근무를 마치고 밤이 아름다운 동생말과 철사다리가 놓여진 산길로 통하는 지름길로 백련사에 도착했다. 광안리와 광안대교와 해운대의 조망을 빛나게 해주는 숨은 명소 백련사에서 멀리 해운대의 마천루를 바라보며 욕심을 내려놓고 관조하게 해준 길으면서 생긴 지혜가 참 고맙다. 투어 4일차는 신선대와 무제등의 전설을 생각하며 해거름에 도착했다. 황금빛 노을이 바다를 적시는 풍경에 잠시 신선놀음에 빠져들었다. 이런 풍경은 스탬프투어의 보너스 같다. 그리고 5일차 황령산유원지 생태숲으로 갔다. 원시 그대로의 산이 마음을 탁 트이게 만들었다. 앞을 바라보니 문현혁신지구의 마천루 건물이 석양과 함께 멋진 실루엣을 연출해 주었다. 황령산전망점터로 곧장 갔다. 와우~, 부산의 최고 야경명소, 마치 헬icopter 도심의 불빛들이 흐른다. 마지막 6일차는 투어의 화봉점정, 감만시민부두공원으로 남구 명소 정점을 찍고 마무리했다. 모든 날이 다 좋았다. 걸어서 좋았고, 말아서 좋았고, 노을이 있어 좋았고, 산이 있어 좋았고, 바다가 있어 좋았고, 남구의 모든 것이 다 좋았다. 무엇보다 내가 사는 마을 남구를 좀 더 촘촘하게 알게 되어 매우 기쁘다. 우연찮게 시작한 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어 감사할 따름이다.

임은옥 명예기자



## 독자의 소리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와 지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 편집실 ☎607-4077, 1225honey@korea.kr

## 미성년 자녀 있으면 숙려기간 3개월

### 박보름 변호사의 생활법률

Q.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부부가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부부는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비치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합의서 작성은 의무 사항은 아니나, 협의이혼 이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이혼에 관한 법원의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이 지난 이후의 이혼의사 확인기일 2개월 고지 받습니다. 법원에서 고지 받은 2개의 기일 중 한번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가정법원으로부

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하는데,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2회 모두 불출석한 경우 가정법원은 이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반드시 쌍방 모두 위 기일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 기일에 쌍방이 모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가 확인된다면 법원에서는 부부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하게 되며, 이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 구, 읍, 면에 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숙려기간이 지난 후 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를 하여야 합니다.

남구청 법률상담터



## 우리지역 일자리 알림판

(2020. 11. 25.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김만동명학원	김만동	영어강사(초등)	1명	11. 25. ~ 채용	월급 140만원 ~ 150만원	633-9578
구세군부산 요양원	대연동	소방안전 관리자	1명	11. 25. ~ 채용	월급 200만원	623-3323
(주)용광사	문현동	경리 사무원(건설)	1명	11. 25. ~ 채용	연봉 2500만원	466-5800
(주)삼주	용호동	마케팅 광고 홍보 상품 기획 사무원	1명	11. 25. ~ 채용	연봉 2600만원 ~ 2800만원	990-1011
(주)에스에이치 더블유	문현동	에어컨 설치 보조 기사	1명	11. 25. ~ 채용	연봉 2400만원	861-5000
새치느김 부분정비	대연동	자동차 정비원	1명	11. 25. ~ 채용	월급 230만원 ~ 280만원	621-1194
우리고속관광 협동조합	용호동	통근버스운전원(장전동 출발)	1명	11. 25. ~ 채용	월급 160만원	892-2222
용호지역아동센터(아간보호)	용호동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실)	1명	11. 25. ~ 채용	월급 146만원	624-1344
(주)메가마트	문현동	상품진열원(남)	1명	11. 25. ~ 채용	연봉 2320만원	633-8405
주식회사 아신티엔엘	용당동	넵동컨테이너 관리원(2교대)	1명	11. 25. ~ 채용	연봉 2700만원	623-3637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 ~ 8 Fax ☎607-4349

### 2021년 (재)남구장학회 장학생 신청하세요

(재)남구장학회에서 지역 우수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2021년도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남구장학회 장학생 선발을 실시합니다.

- 신청기간 : 2020. 12. 10. ~ 2020. 12. 31.(※ 토·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신청자격 : 학부교(보통) 또는 학생이 부산 남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장학생 선발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주소가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자(※ 1세대 1자녀에 한함)
- 선발인원 : 총 50명(고등학교생 40명 및 대학생 10명)
- 제출서류 : 관련서식은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남구 홈페이지(바로가기 메뉴 → 남구장학회 → 장학회 소식)에서 다운로드 ※ 자세한 사항은 2020. 12. 1. 자 남구홈페이지(남구장학회) 장학회 소식) 공문 참고
- 문 의 : (재)부산광역시 남구장학회 사무국(남구 평생교육과 ☎607-4834)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내용

목표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핵심메시지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
조치	다중 시설	공공 운영 중단
	민간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4㎡당(약1명)당 인원 제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등교인원 축소)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예 : 전 인원의 1/2)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